	보도자료			경 축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월 21일(수) 6매	재외동포청	개청
담당 부서 산업정책과	담당자	• 수출지원팀 • 담당자		권 ☎ 440-4281 신 ☎ 440-4282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9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	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니다.	

인천시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 중소기업 성장 도왔다

-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매출 상승까지 …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 올해로 2년째 … 6월 22~25일 11번가서 4차 상설관 운영 -

인천시가 인천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오픈마켓 상설관이 입점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1번가, 티몬, 롯데 온 등 오픈마켓에서 인천직구 상설관을 운영해 약 5억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 상설관 행사가 3일 이상 보름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한 차례씩, 총 세 차례 상설관 행사가 진행됐으며 301개 사의 5,694개 상품 3만6,698개가 팔렸다. (입점기업 및 상품은 채널별 중복 가능)

인천직구는 인천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소상공인 공동 온라인 판로 브랜드로, 시는 2021년 4월부터 이음카드앱 폐쇄몰 운영을 통해 600여

개사의 1만 여 상품 판매를 도왔다.

오픈마켓 인천직구 상설관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인천시가 꺼내든 카드로 지난해 9월 처음 시작됐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1번가와 티몬에서 플랫폼 별 3회, 총 6회 상설관을 운영해 194개 사 3,307개의 상품 2만5,302개를 판매했다. 매 출액은 6억 6,900만 원에 달했다.

대형 오픈마켓은 빠른 배송과 원하는 물건을 바로 찾아 비교할 수 있어 구매자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다.

대형 오픈마켓 내 인천직구관을 운영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매출 신장, 아울러 '인천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한다'는 '인천직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었다.

쇼핑몰 메인베너 및 기획전 탭 노출을 통해 구매 예정자를 인천직구입점 기업의 상품 페이지로 유도했고 상시 5%, 최대 20% 할인쿠폰을지원해 상품 구매를 촉진했다.

실제로 인절미, 송편 등 떡류 제조사 더바른컴퍼니(인천시 서구)와 곡류 브랜드 사랑이네 세상(인천시 강화군)은 상설관 입점 전 판매 대비 23~25%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다양한 고객에 회사 및 판매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딜 행사 및 쿠폰마케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참여 기업의 평

가다.

지난해 상설관에 입점한 육류판매업체 ㈜섬고기는 라이브 방송 한 시간 동안 4,000만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설관 구축 및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오 픈마켓 상설관 행사를 진행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인천시가 국내 대형 유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뤄낸 일이다.

인천직구 상설관 행사의 인천시 예산은 2억2,800만원으로 넉넉치 않은 금액이지만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의무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사가 노출구좌, 할인쿠폰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

올해 인천직구 상설관 행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4차례씩 총 8차례 진행한다. 상반기의 마지막 회차 상설관 행사는 11번가에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3차례 진행한 행사의 총 매출액(5억7039만1,869원)은 지난해 (총 6회 진행) 행사 매출액(6억6901만5,791원)의 85%를 달성했으며입점기업도 194개에서 301개 사로 늘었다. 시는 6월 11번가 행사 추진 시 전년 대비 10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직구 오픈마켓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센터 마케팅 센터 카카오채널(ID:ITPMTS) 또는 유선전화(032-260-0639·0634)로 문의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체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직구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진출을 도모하고 각 기업의 전자상거래(e-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좀 더 많은 기업이 하반기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23 인천직구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 개요



붙임

2023 인천직구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매출 신장 및 상생을 목적으로 국내 대형쇼핑몰과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 판매 진출 도모 및 e-커머스 역량 강화 지원

O 사 업 명 : 인천직구* 오픈마켓 상설관 운영

* 인천직구 : '인천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다'의 의미로 인천시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공동 온라인 판로 브랜드

○ 사업기간 : 연중 * 2022. 9월 오픈마켓 상설관 신규 런칭

○ 사 업 비 : 228백만원

O 지원내용

- 국내 대형쇼핑몰 내 인천직구 상설관(기획전) 구축 및 운영 관리

- 판촉행사 기획을 통한 쇼핑몰 메인배너 및 딜구좌 노출 지원

- 상시 5%, 행사 시 최대 20% 할인쿠폰 지원

구 분	특징	장점		
11번가	국내 이커머스 매출점유 4위	높은 인지도와 매출 파워로 인천직구 인지도 제고에 용이(광고 효율 높음)		
티몬	국내 최초 소셜커머스 기업	타임세일, 라이브커머스 등을 내세워 저가상품, 신생브랜드 진출에 용이		
롯데온	롯데그룹 유통사 통합 쇼핑몰	국내 유통 1위 기업의 쇼핑몰로 높은 신뢰도, MD 밀착 프로모션을 통한 초보기업 지원에 용이		

○ 지원규모 : 385개사 이상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자체생산품 보유 중소제조기업

□ 사업성과

O 매출실적 비교

- 2022년 매출실적(9월~12월) : 쇼핑몰별 3회, 총 6회 행사 진행

플랫폼	입점기업 수	상품등록 수	판매수량	매출액
11번가	107개사	2,467개	16,787개	574,600,730원
티몬	87개사	840개	8,515개	94,415,061원
계	194개사	3,307개	25,302개	669,015,791원

- 2023년 매출실적(3월~5월) : 쇼핑몰별 1회, 총 3회 행사 진행

플랫폼	입점기업 수	상품등록 수	판매수량	매출액
11번가	137개사	2,914개사	17,248개사	365,079,870원
티몬	117개사	1,790개사	16,716개사	97,572,789원
롯데온	47개사	990개사	2,734개사	107,739,210원
계	301개사	5,694개	36,698개	570,391,869원

- → 전년도 대비 3회 적은 행사로 전년도 매출의 85% 달성, 6월 11번가 행사 추진 시 109%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주요성과

('23년도 오픈마켓 신규몰 발굴 및 행사횟수 확대)

- 행사횟수(5회→8회) 확대 및 오픈마켓 신규판로 확대(롯데쇼핑몰)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70% 증가 예상
 - ※ 롯데온 전문MD의 밀착 프로모션 지원으로 바다사나이 매출 19백만원 달성

(국내 대형쇼핑몰과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업무협력 구축)

- 협력사항 : 인천시-광고구좌 운영 / 쇼핑몰-할인쿠폰, 기타 노출구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23. 6. 22.(목) ~ 25.(일) : 11번가 행사 진행
- O 2023. 하반기 : 4회 행사 추가 진행 예정